

# “딸 낳고 보니 부부사랑 더 깊어졌어요”

‘아내의 맛’ 출연 함소원

“시청자 반응 겸허히 받아들여  
원숙해지는 모습 보여줄게요”

“170만원짜리 휴대전화 한 번 사더니, 요새는 한 5만 원짜리 웃은 마음대로 몇 벌씩 사 와요. 상황 엄청나게 좋아졌죠. (웃음)”

TV조선 스타 부부 관찰 예능 ‘아내의 맛’에 남편 천화(陳華 25, 중국인 사업가)와 함께 출연 중인 배우 함소원(43)에게서는 온몸에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최근 확산한 악성 댓글에 자책만 하고 있지는 않을까 살짝 걱정했지만, 최근 마포 상암동에서 만난 그는 “많은 분의 관심을 통해 잘못된 건 고칠 기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모든 시청자를 제 친정엄마이자 시어머니로 뵈었다고 생각해요. 결혼, 출산, 육아는 다다수가 하는 일이니, 더 관심을 갖고 다들 한마디씩 해주시는 거겠죠. 저희도 상황이 있으니 댓글을 100%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최대한 개선해보려 노력해요. 정말 다 듣고 있어요.”

최근 인스타그램에 “방송을 보니 제가 문제가 많을 걸 알았다. 조금씩 바꾸겠다”라고 글을 올린 것도 이러한 생각에서였다고 한다.

그런 함소원을 본인보다도 걱정하는 건 천화라고 한다. 함소원은 “‘서방님’이 한국어를 자세히 몰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때로는 ‘이혼’ 같은 섬뜩한 댓글들도 있는데, 그런 건 무시워서 끝까지 다 못 읽을 정도”라며 “남편이 가끔 눈치를 채고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워낙 낙천적이라 ‘괜찮아’라고 해준다”고 했다.

최근 시청자들 사이에서 도마 위에 오른 에피소드는 크게 요약하는 ‘독방 육아’와 고부갈등, 용돈 문제, 부부 상담 시 전화의 반응 등이었다.

먼저 딸 혜정의 육아를 분담해줄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 묻자, 그는 “최근 고용했다. 친정엄마도 도와주신다”라는 답으로 시청자들을 안심시켰다. 다만 그동안 고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남편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자란 시절이 있어 부모가 직접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다.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터를 고용한 후의 변화를 묻자 함소원은 “구세주가



나타났다”라고 웃었다. 그는 “딸 혜정의 표정이 좋은지, 잘 웃는지, 잘 노는지 열심히 관찰한다. 그 결과 만족한다. 또 시터 분은 전문가이니 우리가 배울 점도 많다”라고 덧붙혔다.

월 50만원, 전화의 용돈을 늘려줄 생각은 없는지도 물었다. 그러나 함소원은 “사실 그동안에도 50만원에 맞춘 적이 거의 없다”라고 웃었다.

“남편은 사업 관련 출장이 잦아 한국에는 한 달에 15~20일 정도 있어요. 중국에 나갈 때 쓰는 돈은 용돈과 별개죠. 물론 50만원에 못 맞추면 제가 잔소리는 해요. 남편이 잘 벌지만, 저는 많이 번다고 많이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니까.”

함소원은 그러면서 “사실 가끔 남편이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연애할 때부터 지갑을 나한테 맡겼다. 또 뭔가 물건값을 깎거나 예약해서 할인을 받거나 할 때는 꼭 나를 시킨다. 알뜰살뜰하게 사는 게 맞다는 걸 자신도 아는 것”이라고 웃었다.

그러나 대부분 논란에 호탕하게 웃어넘긴 함소원도 부부 상담 때 전화가 본인 반응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팠다고 고백했다. 전화는 전문가 상담에서 “(부부생활과 육아가) 솔직히 지친다”라고 털어놨다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함소원은 “남편은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지만, 애정 결핍이 있다. 평소 다투면 한동안 말을 안 하는 타입인데, 상담한 걸 보니 그럴 때마다 저보다 본인이 더 답답하고 고통스러웠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남편은 잠깐이라도 사랑받는 느낌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편”이라고 했다.

특히 딸 혜정이 태어나고, 함소원의 관심이 아이에게 집중되면서 전화가 더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으며 “내 마음속 사랑을 더 뽐내서 딸과 남편에게 나눠주려고 노력해야겠다”라고 다짐했다.

“사실 저는 혜정을 낳고 남편을 매일 점점 더 사랑하게 됐어요. 연애할 때만큼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정이 날마다 쌓여가니까요. 많이 싸우는 만큼 더 사랑하고요. 싸우더라도 마음에 미움은 없어요. 혜정이 있어서 남편이 더 사랑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마흔둘까지 싱글이었지만, 그만큼 오래 기다렸기에 전화도 만나고 혜정도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에 감사해요.”

두 사람은 최근 단둘이 대만 여행을 다녀왔다. 한국에서는 서툰 언어 탓에 대부분 아내에게 의지하던 천화가, ‘홀그라운드’라고 리드하는 모습이 멋지면서도 귀여웠다고 함소원은 털어냈다.

“자신 있게 음식점도 데려가고 명소도 데려가고 하는데, 앞장서는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듣직했어요. 제게 전화는 멋지고 든든한 남편이자, 귀여운 동생이자, 친한 친구이자, 사랑스러운 아들이죠.”

두 사람은 최근 둘째 맞이에 힘쓰고 있다. 함소원은 ‘냉동 난자’로 자녀를 얻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첫째 육아가 힘들지만, 전화도 “셋째까지 좋다”는 뜻을 밝히면서 병원에 함소원보다 더 열심히 다닌다고.

“부부의 일상도, 출산과 육아도, 방송과 흡소평 등 제 일도, 늘 온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엄마는 강하니까요. 앞으로 ‘아내의 맛’을 통해 더 원숙해지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연합뉴스

## 유재명·유아인, 영화 ‘소리도 없이’ 캐스팅



배우 유재명(왼쪽)과 유아인.

유아인과 유재명이 영화 ‘소리도 없이’에 주연으로 기용됐다.

23일 배급사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에 따르면 이 작품은 범죄 조직의 뒤처리를 하며 살아가는 태인(유아인 분)과 장복(유재명)이 예기치 못한 사건 의뢰를 받고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유아인이 연기한 태인은 큰 사건 없이 살아오다 자신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

리게 되는 사건 앞에서 드라마틱한 감정 변화를 겪는 인물이다.

유재명은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섰던 장복 역을 맡아 섬세한 감정 연기를 보여 줄 예정이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선보인 SF단편 ‘서식지’로 호평받은 신예 홍의정 감독이 각본·연출을 맡았다.

이달 말 촬영을 시작하며, 내년 개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용성우·김향기의 학원극 ‘열여덟...’ 3% 출발

그들 워너원 출신 용성우(25)의 첫 주연작 ‘열여덟의 순간’이 첫 방송부터 시청률 3%대로 맞을 율했다.

23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35분께부터 약 70분간 JTBC에서 방송된 이 드라마는 전국 시청률 3.009%(유료 가구)를 기록했다.

주인공 최준우(용성우 분)가 전학 온 첫 날로 시작한 이날 방송은 시계 절도 사건을 둘러싼 사건을 그렸다.

드라마는 최준우와 윤수빈(김향기), 마휘영(손승호)의 감정 묘사에 공을 들였다.

극적인 일이 거의 벌어지지 않고 잔잔하

게 흐르는 심리 묘사에 많은 시청자가 지루하다는 평을 내놓았지만, 10대들의 감성으로 짝 채운 풋풋한 학원극은 오랜만이라 반갑다는 반응도 있었다.

작품이 학교 안 청소년 이야기에 치중하는 만큼, 결국 20대 중반 이상 성인 시청자들과의 공감대를 얼마나 폭넓게 형성하는지가 성공 여부를 가를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날 방송한 KBS 2TV ‘퍼퓸’은 4.4%~5.2%, tvN ‘60일, 지정생존자’는 4.1%(유료 가구)로 집계됐다. SBS TV ‘동상이몽2 - 너는 내 운명’은 6.3%~10.1-8.3%였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휴스턴 국제영화제 수상작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	35 KBC 모닝 730
0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0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신입사관 구해령(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저스티스(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헬로키티 유니버스
12	00 KBS 뉴스 12		00 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 <하이다이빙 남자 결승>	00 SBS 12 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닥터 탐정(재)
0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50 다큐 공감(재)	0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기억, 록, 100년을 탐험하다 50 2시 뉴스 외전	
02	40 팔도밥상 스페셜 50 전국노래자랑(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03		00 자동차부착식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뽀빠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0 뽀사 메가드	
0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0 모두 다 쿵따리(재)	00 SBS 스페셜(재)
0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반지의 비밀일기 2 15 썬! 내 친구는 빅파이브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5 MBC 뉴스 25 최충우돌 만국 유랑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0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백종원의 골목식당(재)
07	00 KBS 뉴스 7 40 미니다큐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쏘지락
0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살리는 남자들	55 신입사관 구해령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09	00 KBS 뉴스9			
10	00 KBS순천 특별기획 미세먼지, 찻빛연기의 경교 55 여름방학 스페셜 대화의 회열	00 저스티스	05 살맛나는 세상	00 닥터탐정
11	35 UHD 숲터 4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덕화TV2 덕화다방(재)	05 라디오스타 1~2부	10 여름특집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재)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TV는 사랑을 싣고(재)	35 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 하이라이트	30 나이트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명탐정 피트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페퍼 피그(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EBS 초대석	19:00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07:00 로보카 폴리	13:00 지식채널e	19:30 생방송 판다다
07:15 꼬마버스 타요	13:10 최고의 요리비결	20:00 갤럭시 프로젝트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4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20:40 세계테마기행
07:45 페퍼 피그	14:30 꼬마버스 타요(재)	<여름이냐 몽골,바이칼 3부 북쪽으로 가면, 바이칼 호수>
08:00 땡땡땡 유치원1~2	15:00 출동! 파자마 삼총사	21:30 한국기행
08:30 몬카트	15:30 뽀롱뽀롱 뽀로로(재)	<여름 김치를 아시나요?>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시즌4	15:45 출동! 슈퍼맘스(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00 마사와 곰	16:00 최고다! 호기심딱지 시즌4(재)	22:45 극한직업
09:30 원더볼즈	16:15 세미와 매직큐브	23:55 EBS 초대석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스페셜	16:30 땡땡땡 유치원1~2(재)	24:50 글로벌 특선다큐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4일 (음 6월 22일 壬戌)

<p>36년생 마지막 상황까지 지켜보고 선택을 하라. 48년생 대처한다면 순행할 수 있다. 60년생 예기치 않은 지출을 기우는 일이 터지겠다. 72년생 불행하다면 오래도록 집착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84년생 가벼운 징후가 현상으로 비화 되지 않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43, 87</p>	<p>42년생 좋은 일이 보인다. 54년생 가까운 곳에 분명히 하지가 있다. 66년생 눈앞에 놓여 있다라도 노력을 경주해야 성취하느니라. 78년생 급한 상황이 되면서 모순점에 대한 인식 능력이 떨어지리라. 90년생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않으면 불리하다. 행운의 숫자 : 19, 29</p>
<p>37년생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나은 결과를 낳게 한다. 49년생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꼭 이해해야 한다. 61년생 배려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73년생 예의 주시해야 할 이가 생긴다. 85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흔들림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0, 97</p>	<p>43년생 고생해 놓고 남 좋은 일만 시킨다. 55년생 소신이 있어야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느니라. 67년생 확인해 봐야 할 때가 되었다. 79년생 치열하고 집요하게 임한다면 늦게나마 대성하리라. 91년생 조심성이 지나치다면 위축되고야 말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7, 49</p>
<p>38년생 실속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50년생 오매불망해 오던 것이 소기의 성과를 드러낸다. 62년생 과잉 확신은 엄청난 오류를 낳기에 충분하다. 74년생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86년생 기대하여 왔던 바대로 이루어 지니 신바람이 절로 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4, 90</p>	<p>44년생 단독으로 처리하는 편이 훨씬 낫다. 56년생 불확실한 사실을 가정하여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68년생 임시 상황이니 전혀 패념치 말라. 80년생 보이지 않는 작용력을 감지할 필요가 있느니라. 92년생 감안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요체가 된다. 행운의 숫자 : 67, 62</p>
<p>39년생 절호의 기회가 다가온다. 51년생 일관성 있게 진행해야 한다. 63년생 조처하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 75년생 총동적인 강구라면 곧 후회하게 될 것임을 알라. 87년생 목적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수고로움만 더 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73, 96</p>	<p>45년생 오해를 풀고 나면 불만이 해소 되리라. 57년생 셈이 명확해야만 한다. 69년생 정도를 벗어나면 당연히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81년생 남 좋은 일만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라. 93년생 의지만 있다면 무궁무진한 발전성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6, 12</p>
<p>40년생 실익이 없다면 나설 이유도 없다. 52년생 대화로써 풀어나가야만 할 것이다. 64년생 조건을 완화한다면 효과가 더 크다. 76년생 생각하고 있는 바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알라. 88년생 급은 것은 펴고 얽힌 것은 풀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40, 21</p>	<p>34년생 달콤한 결실을 하나하나 따게 되는 기쁨이 있도다. 46년생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당분간 함께 하자. 58년생 절대적이라고 상정하고 있다면 오산이다. 70년생 치우친다면 설득력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82년생 삼사 일언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98, 81</p>
<p>41년생 강력한 기득권의 횡포 앞에서 휘둘릴 수 있다. 53년생 스스로 돌이켜본다면 이익의 폭을 넓힐 수 있다. 65년생 견제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77년생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는 않나 경계할 일이다. 89년생 신규는 절대로 아니 되겠다. 행운의 숫자 : 24, 50</p>	<p>35년생 양념을 잘 쳐야 음식 맛이 나는 이치로다. 47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다. 59년생 외형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71년생 다방면으로 고루 안배 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83년생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행운의 숫자 : 29, 08</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